

북한의 <2021년 광명성절 기념공연> 특징과 의미*

강동완 동아대학교

논문요약

지난 2021년 2월 16일 만수대에술극장에서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성절 기념공연>이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앞서 2월 11일 ‘설명절 경축 공연’에 참석한 후, 5일 만에 또 다른 공연을 관람했다.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 음악공연은 주요 행사의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의 선곡, 내용, 구성, 형식 등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광명성절 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2021년은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해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 추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연 주체 역시 기존에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개최하던 왕재산예술단이나 평양시 예술단 소조가 아닌 현재 김정은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연주단인 공훈국가합창단과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합동공연 형식의 대규모 공연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공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연에서 김정은이 재청(앵콜)을 두 번이나 지시하는 모습 등은 기존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식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음악정치가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선보인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활동과 의미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주제어 : 2021년 광명성절 공연, 음악정치, 국무위원회연주단, 북한음악

* 이 연구는 동아대학교 교내연구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I. 서론

1. 연구배경

지난 2021년 2월 1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성절 기념공연>이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앞서 2월 11일 ‘설명절 경축 공연’에 참석한 후, 5일 만에 또 다른 공연을 관람했다. 광명성절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과 함께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로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해 전시회, 체육대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데, 경축 음악공연도 예외는 아니다.

주목할 점은 이전의 행사와 달리 기념공연에 김정은이 참석했고, 이는 불과 앞선 공연에 이어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신년 1월이면 설맞이 기념 음악공연을 개최한다. 설맞이 음악공연과 광명성절 공연에 연이어 김정은이 참석을 했다. 더욱이 2021년은 제8차 당대회가 열리면서 이를 기념하는 음악공연까지 개최되었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모든 음악공연에 김정은이 참석한 셈이다. 그렇다면 음악공연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2021년은 북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언론매체는 매일 전 세계의 코로나 확산 소식을 보도로 전하며, 비상방역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시기 수백 명의 관람객이 모인 자리에 김정은은 마스크 하나 쓰지 않고 공연장에 등장했다.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광명성절 경축 공연에 김정은의 참석 여부는 일정하지 않았다. 바로 직전인 지난 2020년 2월 광명성절 공연 때에도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광명성절 기념 공연 역시 북한 예술단 중 어느 예술단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할지 정

해진 건 없다. 예를 들어, 2014년 동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공연, 2015년에는 성·중앙기관 예술소조 종합공연이 열렸다. 2016년인 광명성절에는 수중체조무용공연 ‘위대한 인민의 태양’이 창광원 수영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2017년은 설명절과 광명절, 2018년에는 광명성절 경축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인 ‘2월 명절을 노래해요’가 개최되었다. 2019년에는 광명성절 축하 성·중앙기관 예술소조 종합공연, 은하수 광명성절 음악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성절을 즈음해 김정은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나 중앙보고 대회 등에는 참석했지만 기념 음악공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에는 앞서 두 차례나 음악공연을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연장을 찾은 것이다.

한편, 이 공연과는 별도로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2021년 광명성절을 맞아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동평양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공연에는 평양시내 기관과 공장, 기업소 일꾼, 노력혁신자 등이 관람했다. 전년도 행사와 동일하게 만수대예술단이 주축이 된 광명성절 기념공연이 개최된 것이다. 그런데 예년과 다르게 2021년에는 별도로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예술단이 아닌 여러 예술단의 합동공연 형식으로 이번 공연이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음악정치라는 관점에서 광명성절 경축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최근 북한 음악공연에 관한 연구는 주로 김정은 시대 개최된 주요 행사 축하공연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는 경향이다. 북한 당국은 매년 설맞이 축하공연, 광명성절 공연, 노동당창건 축하 기념 등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마다 반드시 음악공연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특정성과를 기념하거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음악공연을 개최한다.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기념>, <당대회 경축 기념>, <비행사대회 기념> 공연 등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공연 형식이다. 이러한 음악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당국의 정책 의도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에서 강동완·문다혜는 지난 2014년 9월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공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강동완 외 2015). 당시 개최된 신작음악회라는 공연은 북한의 음악공연 가운데 처음 개최된 행사로 김정은 정권 초기 김정은을 주로 칭송하는 신곡들이 발표된 공연이었다. 이어서 강동완(2015, 2018, 2020)은 “모란봉악단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를 위한 기념공연’ 의미와 전망,” “북한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 특징과 의미”, “북한의 <제7차 당대회 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의 특징과 의미,” 등 주로 모란봉악단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시대 음악공연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분석했다. 모리 토모오미 역시 김정은 시대 음악 정치에 관심을 두고 모란봉악단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모리 토모오미 2015). 특히 “김정은 시대 음악정치의 연속성과 혁신성”(모리 토모오미 2016) 연구를 통해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의 음악 정치를 비교하고 이를 연속성과 혁신성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정권 초창기에 결성된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음악공연은 지난 10여 년간 김정은 시대의 음악정치를 구현하는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자악기와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며 해외명곡 연주까지 선보인 이들 악단 공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민족 음악 부분의 공연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 음악 연구도 주로 현대 악기 중심의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 민족 음악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배인교(2018)는 “21세기 북한 민족음악의 변화 양상,” 연구를 통해 북한 민족 음악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김정일 사후 집권한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체제 유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민족음악을 강조

하지 않았다. 민족적 형식에 대한 언급이나 민족음악의 강조보다는 인민의 정서와 세계적 추세를 내세웠다. 북한의 예술은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예술의 창조성보다는 수단성을 지향한다(통일교육원 2017).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 음악공연은 주요 행사의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의 선곡, 내용, 구성, 형식 등에서 변화를 거듭한다(강동완 2021). 따라서 해당 정치행사의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공연을 통해 정책 의도를 주입,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광명성절 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광명성절 공연은 매년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음악공연이다. 그런데 공연마다 같은 선곡도 있지만, 그 당시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특정 공연 순서가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광명성절 공연과 2016년 광명성절 공연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2016년은 북한 내부적으로 제7차 당대회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던 시기이며, 2021년은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해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 추진하는 시점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음악정치가 활용되는지 볼 수 있다.

II. 공연 개요 및 주요 특징

1. 공연 개요 및 구성

이번 공연은 2021년 2월 17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연 참가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함께 보았다’라고 언급한다.¹⁾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김정은과 함께 리설주도 공연을 관람했는데 리설주의 경우 1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거라 주목받았다.

1) 『조선중앙통신』 2021년 2월 17일.

국무위원회 소속 가수 김태룡이 독창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시작한 이번 공연은 1시간 50분 정도의 공연 시간으로 채워졌다. 전체 공연 중 1부 공연(공연 시간 45분)의 선곡은 김정일에 대한 추모곡으로, 2부 공연(공연 시간 65분)은 김정은과 당을 노래하는 곡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애국가에 이어 1부 공연은 가수 김옥주와 김태룡의 혼성 2중창과 남성합창으로 시작되었다. 삼지연관현악단 결성 이후 최근 북한의 대표적인 가수로 김옥주와 김태룡을 꼽을 수 있다. 공연 첫 곡은 연주단에서 비중이 큰 가수가 주로 도맡아 부르는데, 이번 공연에서도 두 가수의 위상을 반영하듯 공연의 첫 순서를 맡았다. 1부 공연의 첫 곡인 “빛나라 정일봉”을 비롯해 “2월은 봄입니다”라는 곡은 매해 광명성절 기념 공연 때 반드시 불리는 곡이다. 공연의 다음 순서인 노래련곡은 “우리의 김정일 동지”를 비롯해 “기다렸습니다”, “그리워”, “그 품 떠나 못 살아” 등 주로 김정일을 회고하는 내용의 노래가 연주되었다. 이외에도 차윤미와 김옥주가 각각 “축원”과 “장군님 생각”을 독창으로 불렀고, 1부 순서의 마지막은 김옥주와 최설희의 여성2중창과 남성합창으로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을 부르며 마무리되었다.

마지막곡이 연주될 때 관객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김정은과 리설주 역시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집중 조명되었다. 특히 공연 중에 리설주가 김정은에게 귓속말을 건네며 대화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북한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장면이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그다음 순서다. <친근한 이름> 노래가 모두 끝나고 1부 공연의 막이 내릴 때, 김정은은 공연단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무엇인가 지시를 한다. 방금 연주했던 ‘친근한 이름’을 재청한 것이다. 김정은의 재청에 따라 지휘자 김충일의 지휘 신호에 맞춰 김옥주와 최설희는 한 번 더 이 노래를 부른다. 이때 관객은 모두 기립해 손뼉을 치고, 김정은과 리설주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비추어졌다.

<표 1> 공연의 곡명과 가수

	노래 제목	구성	가수
1부 (45분)	애국가	독창	김태룡
	빛나라 정일봉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김옥주, 김태룡
	2월은 봄입니다	여성중창	김옥주, 김청 외
	우리의 김정일 동지	노래연곡	.
	기다렸습니다		.
	사랑의 봄빛		김옥주
	그리워		리분희
	그 품 떠나 못살아		.
	아 그리워		한홍명
	축원		여성독창
	장군님 생각	여성독창	김옥주
	정일봉의 눈보라	혼성중창	최설희 외
	친근한 이름	여성2중창과 남성합창	김옥주, 최설희 외
친근한 이름	김정은의 재청에 따라		
2부 (1시간 5분)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노래연곡	김주옥, 정영만
	내 심장의 목소리		한홍명
	당을 따릅니다		.
	나를 부르는 소리		.
	아 자애로운 아버지		리분희
	우리의 김정은 동지		.
	조국과 나	여성독창	리분희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여성중창	.
	생이란 무엇인가	남성독창	제갈혁
	인생의 영광	남성독창과 합창	김태룡
	우리 당이 있기에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김태룡 외
	전사의 길	혼성중창	김태룡 외
	사회주의 지키세	가무	.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김태룡, 김옥주 외
	인민은 일편단심	여성독창과 혼성합창	김주옥 외
친근한 이름	김정은의 재청에 따라		

제2부 공연은 지휘자 김충일의 지휘에 맞춰 “노래련곡”으로 시작했다. 1부 공연이 주로 김정일에 대한 회고와 관련한 선곡이었다면 2부 공연은 김정은과 당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노래로 채워졌다. 특히 2부 공연의 첫 순서인 노래련곡에서는 ‘아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의 김정은 동지’ 등 김정은을 직접 찬양하는 노래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2부 공연에서는 1부공연과 달리 ‘사회주의 지키세’라는 노래와 함께 가무 순서가 이어졌다. 1부 공연이 주로 김옥주를 중심으로 한 여성 가수들 중심의 순서였다면, 2부 공연은 김태룡을 중심으로 남성중창과 합창 중심의 곡이 주로 연주되었다.

2. 김정은이 두 번이나 재청(앵콜)한 노래

이번 공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특정한 곡에 재청(앵콜)을 두 번이나 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시대 개최된 북한 공연 중에서 김정은이 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처럼 연주 순서와 관계없이 관객석에 앉은 김정은이 무대에 직접 재청을 지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김정은의 재청에 따라 같은 공연에서 한 곡을 무려 세 번이나 연주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연주한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이 끝난 후 김정은이 재청하여, 이 곡을 다시 연주했다. 이후 2부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이 다시 재청을 지시하면서 한 공연에서 같은 곡이 무려 세 번이나 연주되었다. 2부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지휘자를 가리키며 지시했는데, 이때 가수들이 무대 위치를 잡지 못해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봐서 사전에 연출하지 않은 김정은의 즉흥적인 행동으로 추측된다. 공연이 끝난 후 노동신문은 공연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의 재청을 공식적으로 보도했다.²⁾

2) “총비서동지의 재청에 따라 어버이장군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노래 하며 우리 인민들이 애창하여온 전인민적찬가 <친근한 이름>이 다시금 울려 퍼져 장내를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였다” 『노동신문』, 2021년 2월 17일.

<사진 1> 공연이 끝난 후 무대를 향해 재청을 지시하는 김정은의 모습



출처: 조선중앙방송 화면 캡처

한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공개된 공연 녹화 영상을 보면, 공연 도중 김정은이 리설주에게 재청에 대한 의사를 묻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공연 내내 수차례에 걸쳐 김정은과 리설주의 대화 장면이 카메라에 집중 조명되는 연출도 있다. 이 과정에서 리설주는 공연 안내 순서지를 건네며 김정은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김정은이 재청한 노래는 김옥주와 최설희가 여성2중창으로 부른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이다. 이 노래는 김정일의 친근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다. 최준경이 작사한 곡으로 인민예술가로 북한의 대표 작곡가인 리종오가 작곡했다. 1986년 당시 보천보전자악단에서 활동하며 1988년 20세의 나이에 공훈배우 칭호를 받은 가수 김광숙이 부른 곡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2> 공연 도중 대화를 나누는 김정은과 리설주의 모습



출처: 조선중앙방송 화면 캡처

<친근한 이름>

1절

어머니란 말과 같이 다정하여라 스승이란 말과 같이 친근하여라
기쁨속에 그 이름 부를 때에는 가슴속에 밝고 밝은 해가 솟아라

2절

아이들도 어른들도 맑은 소리로 아침저녁 그 이름을 노래에 담네
행복속에 그 이름 부를 때에는 마음속에 향기로운 꽃이 피여라

3절

온 세상이 받드는 친근한 이름 해님으로 우러르는 친근한 이름
투쟁속에 그 이름 부를때에는 온 누리에 붉은 노을 찬란하여라

(후렴)

아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지금까지 북한 음악공연에서 김정은의 재청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같은 행동이 주목되지만,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파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번 공연에 1년여 만에 리설주가 동행했고, 리설주와 김옥주의 관계가 매우 친분이 있어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된 것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김정은의 재청에 따라 이 곡을 부른 김옥주는 리설주와 함께 과거 은하수관현악단 소속 시절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라는 곡을 중창으로 함께 부를 정도로 같은 무대에서 활동했던 가수다.

김옥주의 위상은 최근 북한 음악공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김정은이 참석하는 공연에서 애국가를 독주로 부르는가 하면, 모든 공연의 독창을 주도하며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 대표 여성 가수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강동완 2021).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라는 곡은 지난 제8차 당대회 경축 대공연 당시 처음으로 선보인 <그림자 무용>의 배경곡이기도 하다. 리설주와 함께 한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 김옥주, 그리고 그 노래가 현재 북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김옥주의 위상은 리설주와의 관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김정은 시대 대표 남성 가수 김태룡의 위상

최근 북한 음악공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은 여성 가수인 김옥주와 함께 국무위원회연주단의 남성가수 김태룡을 꼽을 수 있다. 국무위원회연주단은 지난 2020년 1월 <설명절 기념 공연>에서 삼지연관현악단,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국무위원회연주단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노동신문 보도에서 주요 예술단체로 국무위원회연주단을 소개하면서부터다.³⁾ 삼지연관현악단이나 공훈국가합창단은 별도의

3) 『로동신문』, 2020년 1월 26일.

단독 공연을 개최한 적이 있지만, 이 시기까지 국무위원회연주단의 단독 공연은 열린 적이 없었다. 김정은 시대 결성된 또 하나의 연주단으로 국무위원회연주단이라는 명칭에 미루어 볼 때 국무위원회 직속 연주단으로 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국무위원회연주단의 대표가수로 활동하는 김태룡의 역할은 이번 공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조선중앙TV로 공개된 공연 녹화 영상을 보면 공연단 소개 하이라이트에 김태룡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특히, 김태룡은 공연 시작 전 국가를 독창으로 부르는데, 북한 음악 공연에서 애국가 독창은 지금까지 손에 꼽을 정도로 몇몇 주요한 가수만이 담당했다.⁴⁾ 김태룡이 공식적으로 북한 음악공연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지난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애국가를 독창으로 부르면서부터다. 열병식 시작전에 북한 국기를 게양하는 순서에서 김정은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가 기립한 가운데 김태룡이 애국가를 독창으로 불렀다.

한편, 애국가에 이어 김태룡은 공연 첫 곡으로 ‘빛나라 정일봉’을 김옥주와 함께 부른다. 전체 공연 중 독창은 물론 남성중창까지 연이어 출연한다. ‘인생의 영광’, ‘우리 당이 있기에’, ‘전사의 길’, ‘사회주의 지키세’,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등 2부 공연의 대부분 순서가 김태룡 중심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김태룡의 역할은 이번 공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모든 순서에 포함되었다.

또한 독창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 공연에서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여성 가수인 김옥주와 혼성2중창을 구성한 점 역시 김태룡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을 방증한다. 5일 전 개최된 <설맞이 경축 공연>에서 혼성 2중창으로 김옥주와 리명학이 불렀던 <전사의 길>이라는 곡을 이번 공연에서는 김태룡이 김옥주와 함께 불렀다.

4) 김정은 시대 음악공연 중 모란봉악단 공연 당시 가수 류진아, 라유미가 애국가 독창을 부른 정도다.

<사진 3> 이번 공연에서 애국가를 독창으로 부른 김태룡의 모습



출처: 조선중앙방송 화면 캡처

김태룡의 위상이나 역할은 이 공연이 개최되기 5일 전에 열린 <설명절 경축 공연> 당시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로 내려온 김정은은 다른 공연자와는 악수만 하는 데 비해, 김태룡과는 꺾속말과 함께 볼을 쓰다듬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특히 공연 참가자들과 김정은이 함께 기념촬영을 할 때 김태룡이 김정은의 손을 세 번이나 두드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진 4> 설맞이 경축 공연이 끝난 후 기념사진 촬영 당시 김태룡이 김정은의 손을 잡은 모습



출처: 조선중앙방송 화면 캡처

4. 노래 <인생의 영광>과 주요 인물

이번 공연이 개최되기 5일 전에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경축 공연>이 열렸는데 직전 행사라는 점에서 두 공연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각각 다른 행사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연주단과 가수들이 5일 만에 음악공연을 개최했기 때문에 공연 구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같은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배경화면의 구성이 달라진 점이 주목된다.

이전 <설맞이 경축 공연>에서 김태룡이 <인생의 영광>이라는 곡을 부를 때에는 무대 배경화면에 ‘허담’을 비롯해 10여 명 정도 주요 인사

들의 사진과 이름이 표시되었다. 허담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동한 외교관으로서 북한의 대외 관계 업무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매해 1월에 설맞이 경축 음악공연을 개최하는데, 이전 공연에서는 한 번도 공연 구성에 없었던 주요인물 소개를 노래와 함께 보여주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활동했던 주요인물을 소개하며 ‘당과 정권을 위해 충성한 삶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5일이 지나서 개최된 이번 <광명성절>공연에서는 김태룡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전 공연과는 달리 무대 배경화면의 구성이 달라졌다. 무대배경 화면에 최현, 김일, 오진우, 리을설, 최광, 황순희, 김용순, 허담, 연형묵 등의 주요인물 사진이 연출되었다. 또한 김정일과 나란히 사진을 찍은 4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을 소개했다. 공연의 성격이 김정일을 회상하고 기리는 광명성절 공연이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 활동한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대를 이어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의미인데, 역시 공연 순서 마지막에 <일편단심>이라는 구호가 대형 전광판에 새겨진다.

5. 가무 ‘사회주의 지키세’를 통한 공연형식의 다변화

북한 음악공연에서 대공연이라 명명하는 공연에는 왕재산예술단 소속 무용수들의 가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공연에서는 예전의 광명성절 공연에서는 선보이지 않았던 가무가 공연 순서에 추가되었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북한의 무용교육은 민족무용 동작을 바탕으로 남녀군중무용이라는 사회주의사상이 반영된 생활 속 단체 춤 활동의 실천으로 귀결된다(이정민 2019). 대부분 군무 형태로 선보이는 가무는 김정은 시대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가수들의 춤을 통해 많이 변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자음악 반주를 배경으로 웨이브 형태의 경쾌하고 화려한 동작의 춤은 기존 북한의 군무나 춤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사회주의 지키세’라는 제목으로 가무를 선보이며 공연 형식을 달리했다. 9명의 여성 단원들로 구성된 가무는 기존의 왕재산예술단이 탭댄스나 무용만을 담당하던 형식이 아닌 출연자들 모두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형식이다. 경쾌하고 빠른 박자의 노래를 부르며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인 가무는 <사회주의 지키세>라는 노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체제의 우월성과 충성심을 고양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Ⅲ. 공연의 주요 의미

1.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등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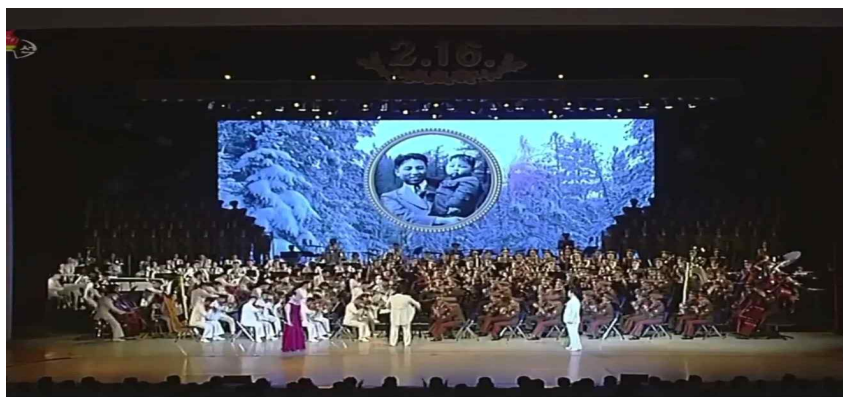
이번 공연의 전반적인 의미를 분석할 때 가장 주목할 점은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공식적인 등장이다. 이전까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특정 공연에 국무위원회연주단이 출연했다는 내용 정도로만 소개되었다. 그런데 이번 악단 구성과 관련해 주요한 특징은 바로 5일 전에 개최된 <설명절 경축 공연>과 뚜렷이 구별되면서 국무위원회연주단이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설명절 경축 공연>이 공훈국가합창단의 연주와 삼지연관현악단 소속 가수인 김옥주, 김청, 최설희 등이 노래를 담당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공연은 국무위원회연주단이 추가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공연의 구성을 비교하면 선곡은 크게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같은 내용의 공연이다. 단 하나 차이가 바로 연주단에 국무위원회연주단이 추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무대를 구성한 연주단 단원이 입은 유니폼으로 연주단이 명확히 구분된다. 공훈국가합창단은 고유의 마크를 부착한 군복 계열의 유니폼이 있다. 이에 반해 국무위원회 연주단은 하얀색 유니폼으로 공훈국가합창단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옷 색깔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경

우 군모를 썼기 때문에 국무위원회연주단과 확연히 구분된다. 더욱이 국무위원회연주단 소속 가수인 김태룡이 노래를 부를 때도 단원들과 똑같이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출연함으로써 이들이 다른 연주단과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연주단이나 예술단은 고유한 유니폼을 입고 무대에 섰다. 모란봉악단은 공연 성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군복 형태의 옷을 입었고, 청봉악단과 삼지연관현악단은 화려하게 디자인 한 무대복으로 연출했다. 그런데 국무위원회연주단의 경우 별도의 디자인 없이 하얀색을 강조하는데 북한에서 하얀색은 고결한 사상과 충성심 등을 강조하는 색으로 볼 수 있다.

<사진 5> 국무위원회연주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무대 구성



출처: 조선중앙방송 화면 캡처

북한에서는 김정일 시대 은하수관현악단,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예술단을 비롯한 음악공연을 통해 정치선전을 극대화했다. 이를 ‘음악정치’라고 표현하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 역시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 국보적인 예술단체로 소개하는 연주단이 주요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대 강성대국건설과 함께 주창된 선군음악정치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 초기까지 이어졌다. 북한에서 바라보는 음악정치의 위상은 “음악속에 우리 당의 정치가 반영되어 있고 그것이 당의 선군혁명명령도,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며, “선군시대음악이 사람들의 정서생활을 풍만하게 하고 그들의 심장을 움직여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배인교 2018).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등이 결성될 때에는 북한의 공식 언론을 통해 악단 결성의 의미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악단의 창당과정에는 김정은이 직접 발기 했다는지, 악단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고 노래 선곡까지 지도했다고 선전한다.⁵⁾ 하승희 연구에 따르면 북한 2018년 3월 14일자 로동신문 “조선은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일떠서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세계 유명 음악가의 권위를 빌려 국제콩쿠르 수상 쾌거를 지도자의 공로로 부각시키는 데 힘을 실었다.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한 교육자와 수재를 발굴하고 능력을 발전시킨 음악교육체계를 마련한 것은 결국 지도자라는 것이다(하승희 2019). 음악교육은 물론 공연과 악단 결성까지 최고지도자를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국무위원회 결성이나 활동에 김정은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다.

지금까지 국무위원회연주단의 결성과 그 활동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다. 그동안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특정 공연에 ‘국무위원회연주단’ 등 주요 예술단체가 참여했다는 정도의 보도만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

5) 북한 김정은 시대 악단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 『김정은의 음악정치』 (부산: 너나드리, 2018) 참조.

를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구성에서 공훈국가합창단과 뚜렛이 구분되는 유니폼을 입고 무대의 절반을 구성함에 따라 단원의 규모나 형태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 2016년 광명성절 공연과 비교

지난 2016년 2월 16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는 <광명성절 경축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 합동공연>이 개최되었다. 당시 공연의 핵심이었던 청봉악단은 2012년에 결성된 모란봉악단과 함께 ‘또 하나의 국보급 예술단체’로 소개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때였다. 매년 개최되는 광명성절 공연형식이 아닌 당대 최고의 두 악단이 합동공연을 통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은 2016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2016년은 제7차 당대회 개최를 통해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발표하는 등 김정은 2기 체제 출범이라는 의미를 둔 해였다. 이미 제7차 당대회를 공지한 상황에서 2016년 1월의 신년경축공연과 2월의 광명성절 공연은 특별한 의미를 둘만큼 비중 있는 행사였다. 따라서 당시 최고의 위상을 지닌 청봉악단과 왕재산예술단의 합동공연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광명성절 공연이 개최되었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광명성절 공연 역시 2016년 때와 같이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행사였다.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또 다른 5년이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과 2021년 광명성절 공연의 비교를 통해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노래 선곡의 경우 지난 2016년 공연의 경우 김정일을 추모하는 회상곡 위주로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가 아닌 소규모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광명성절 공연이 매년 반복되는 정기적인 행사이기에 해마다 두드러진 변화나 특징이 있는 건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2016년 공연은 당시 북한 내부 상황을 반영해 청봉악단과 왕재산예술단의 합동공연으로 개최하면서 변화를 꾀했다.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몸부림치던 주체100(2011)년 12월에 벌써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돐을 가장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할 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광명성절경축행사준비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행사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며 김정은의 공연 지도를 언급한다(채희원 외 2017).

그런데 2021년 광명성절 경축 공연은 2016년 공연 때와 또 다르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만큼 공연의 규모나 시간이 대규모 공연으로 바뀌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김정은에 대한 찬양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번 공연의 1부는 2016년 광명성절 공연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추모 내용에 집중되었다.

공연 중 ‘빛나라 정일봉’, ‘2월은 봄입니다’ 등의 노래는 매년 개최되는 광명성절 기념 음악 공연에 빠지지 않고 불리는 노래다. 2016년 공연과 2021년 공연 시 김정일 추모 관련 ‘노래련곡’을 비교하면 선곡이 다름을 알 수 있다. 2016년의 선곡은 ‘빨치산’, ‘최전연’, ‘전선’ 등 현 지도도에 나선 김정일의 활동을 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최고지도자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김정일의 지도자상을 강조한다. 그런데 2021년 노래련곡은 특정한 성과나 활동보다는 ‘그리움,’ ‘기다림’ 등 단순히 김정일을 회상하는 정도의 노래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표 2> 2021년과 2016년 광명성절 기념 공연 중 <노래련곡> 비교

2021년 1부 공연	2016년 공연
우리의 김정일 동지	영원한 태양의 노래
기다렸습니다	장군님은 빨치산의 아들
사랑의 봄빛	내 조국의 밝은 달아
그리워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그 품 떠나 못살아	장군님과 인민
아 그리워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또한 2부 공연은 2016년 광명성절 공연을 포함해 이전 음악공연에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순서와 구성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2016년 광명성절 공연에서는 마지막곡인 ‘우리의 신념’이라는 제목의 곡에서 “우리 신념 누가 꺾으랴, 김정은 동지따라 끝까지 가리라”는 가사 내용 정도가 김정은을 직접 언급한 전부였다. 이에 반해 이번 공연에서는 김정은을 직접 찬양하는 내용의 ‘아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의 김정은 동지’ 등의 노래 등이 2부 공연의 핵심이었다. 2016년 당시만 해도 광명성절 공연의 내용이 김정일에 집중되었다면 5년이 지난 2021년 공연은 2부 순서를 추가해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로 별도로 구성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음악 선곡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과 정책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로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의미와 함께 후광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공고히 확립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발간한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의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제4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총비서로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이 아닌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선대의 사상을 계승함을 강조한다. 이 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도덕의리라는 개념이다. 실제로 “적들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자신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적들은 우리 혁명가들의 도덕관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리해 할래야 할수도 없다”고 언급한다(채희원 외 2017). 따라서 이번 광명성절 공연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2부 공연에서 김정은 개인에 대한 칭송과 함께 총비서에 대한 직함을 수여함에 대한 당위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미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제도정비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도적 리더십의 구축이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로서 통치자의 자리를 점한 이후,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은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 것. 김정

은이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김정수 2019).

I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북한의 음악공연이 특정한 행사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마다 선곡이나 형식을 달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난 2021년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광명성절 기념 음악 공연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지만, 공연 주체와 내용은 변화했다. 특히, 북한에서 강조하는 특정한 해의 행사 시에는 어떤 공연단이 어디에서 공연을 펼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의 공연 관람 참석 여부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2021년 광명성절 기념공연은 김정은이 리설주와 함께 관람한 공연으로, 리설주의 경우 1년여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연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공연 주체 역시 기존에 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개최하던 왕재산예술단이나 평양시 예술단 소조가 아닌 현재 김정은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연주단인 공훈국가합창단과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합동공연 형식의 대규모 공연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공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연에서 김정은이 재청(앵콜)을 두 번이나 지시하면서 같은 공연에서 세 번이나 연주된 '친근한 이름'이라는 노래는 기존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식이다. 무대 위 출연진들의 모습에서 미루어 볼 때 사전에 연출되지 않은 김정은의 즉흥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를 단순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취향 문제로만 한정하기에는 그 의미가 크다. 김정은 시대라 부를 수 있는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 공연에서 김정은이 재청을 지시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노래를 부른 김옥주와 리설주의 관계 때문인지, 당시 공연장의 분위기에 따른 김정은의 즉흥적인 취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행동이 북한의 공

식매제인 노동신문에 기사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행동을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공연에서 보여준 가수들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무대 의상, 조명, 방송장비 활용 등은 자본주의 양식의 상업적 콘서트나 쇼와 같은 형식처럼 보인다. 외부정보를 철저히 봉쇄하면서도 이른바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며 세계명곡 연주나 무용 등을 선보이는 북한의 음악공연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번 공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쪽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등장과 함께 음악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전 분야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북한식 대중가요라 말할 수 있는 ‘생활가요’가 등장하였고, 분단 이전에 만들어진 근대노래인 창가.동요.예술가곡.대중가요.신민요 등에 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역시 북한 음악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민경찬 2018).

한국 영화와 드라마, 노래 등이 북한에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문화 소비 행태도 달라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북중국경 지역을 통해 밀수로 유입, 유통되는 이른바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북한 당국의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에는 ‘모기장론’을 주장하며 외부정보를 무조건 막는 데에 급급했다면 김정은 시대 들어 외부 콘텐츠와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는 대부분 K-pop으로 대변되는 노래가 중심이지만 이미 영화와 드라마, 상품, 가치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다.⁶⁾ 이러한 흐름에 북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에 비쳐진 패션이나 상품 등이 밀수를 통해 북한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한국식 말투나 머리모양을 따라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문화적 취향의 변화가 고스란히 북한 음악공연에도

6) 김정은 시대 북한 내부의 한류 현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 외, 『사람과 사람: 김정은시대 북조선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 참조.

반영됨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선보인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활동과 의미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국무위원회 연주단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의 이름을 부여받아 직속 연주단으로서 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연주단에 소속된 김태룡과 김옥주의 역할로 미루어볼 때도 연주단은 현재 김정은 시대의 음악정치를 대변한다. 향후 북한당국의 정책방향 변화를 가늠해 본다는 점에서 국무위원회연주단의 선곡이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동완. 2021.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축하대공연의 특징과 의미.” 『문화와 정치』 제8권 제2호.
- . 2020. “북한의 <제7차 당대회 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의 특징과 의미.” 『정치정보연구』. 제23권 2호.
- . 2018. “북한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 특징과 의미.” 『북한학보』. 제43집 2호.
- . 2018. 『김정은의 음악정치』. 부산: 너나드리.
- . 2015. “모란봉악단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를 위한 기념공연 의미와 전망.” 『국제정치연구』. 제18집 2호.
- 강동완·문다혜. 2015. “2014년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공연의 의미와 시사점.” 『동북아연구』 제30권 1호.
- 강동완·박정란. 2015. 『사람과 사람: 김정은시대 북조선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 김수민·한승호. 2013. “2013년 모란봉악단 신년음악회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 김정수. 2019. “북한의 문화정치.” 『한국예술연구』 제24호.
- 모리 토모오미. 2015. “모란봉악단, 그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북한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 2016. “김정은 시대 음악정치의 연속성과 혁신성.” <세계북한학대회 학술자료집>.
- 민경찬. 2018. “21세기 북한의 음악.” 『한국예술연구』 제22호.
- 이동연. 2021. “예술한류의 형성과 문화정체성.” 『한국예술연구』. 제32호.
- 이정민 외. 2019. “남북한 학교 무용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예술연구』 제26호.
- 배인교. 2013. “2012년 북한의 음악공연과 樂.” 『남북문화예술연구』 통

176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5호 (2021)

권 제13호.

----- . 2018. “21세기 북한 민족음악의 변화 양상.” 『한국예술연구』 제22호.

통일교육원. 2017.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하승희. 2019. “북한의 음악수재 인식변화와 활용 양상.” 『한국예술연구』 제25호.

- 북한자료

채희원 외. 2017.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노동신문』, 2021년 2월 17일.

『조선중앙통신』 2021년 2월 17일.

투고일 : 2021년 9월 14일 . 심사일 : 2021년 9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0월 1일

* 강동완은 성균관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박사를 받고, 현재 동아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저서로 <평양 882.6km>,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보다>,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 <그들만의 평양>, <김정은의 음악정치>, <평양 밖 북조선> 등을 저술했다.

<Abstract>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2021 Commemorative Show of Day of The Shining Star" in North Korea

Kang DongWan
(Dong-A Univ.)

On February 16, 2021, the "commemorative show of Day of The Shining Star" was put on the stage at the Mansudae Art Theatre with the participation of Kim Jung-un and Lee Seol-ju. Kim Jung-un watched another show in five days after his participation in the "celebratory show of Lunar New Year" on February 11. Day of the Shining Star is observed as the biggest holiday in North Korea along with Day of the Sun marking the birthday(April 15) of Kim Il-sung. What is noteworthy about this year's Day of the Shining Star is that Kim Jung-un participated in its commemorative show unlike its previous editions only in five days from his participation in the Lunar New Year's show. He did not show at the commemorative show of Day of the Shining Star in 2014~2020, taking part in the worship service at the commemorative palace of Mt. Geumsu and the Central Committee's report congress. In North Korea, music performances are represented by musical politics. They keep changing in their selection of works, content, composition, and form to maximize the nature of a major event. This study was conceived by an observation that no previous studies covered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Day of the Shining Star shows in North Korea. 2021 marks North Korea's announcement and propulsion of its new five-year development plan along with the 8th party convention. This year's show offers a peek at how musical politics is used inside North Korea.

Keywords : 2021 show of Day of The Shining Star, musical politics, troupe of State Affairs Commission, music of North Korea